

순천만정원박람회 막바지 준비 한창

시크릿가든 등 시설 공사 마무리

3월 한 달간 리허설 기간 운영도

가든스테이, 10일부터 사전예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5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90%대다. 박람회장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일부 화훼 장식과 개막식 무대 연출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조직위는 밝혔다.

박람회 주요 무대인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은 막바지 공사 중이며, 조만간 시운전에

착수한다.

2.5km의 동천 벚길을 따라 운영하는 정원드림호(12인승 4대·20인승 1대)는 제작을 마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국가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에 들어간다.

대표 정원인 시크릿가든, 국가정원식물원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내 정원을 조성 중이다.

순천 전역에 조성 중인 355만㎡ 규모의 경관 조명은 종자 파종 작업을 마무리하고 봄꽃 심기에 들어갔다.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도심에 조성된 12km 길이의 '어싱길' (맨발 걷기)은 이달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 31일 동천·그린아일랜드·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조직위는 이달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리허설 기간을 운영하며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장권 판매는 41만명이 사전 예매했으며, 사전 판매 수익은 45억원을 달성했다.

백운석 조직위 운영본부장은 "균직한 시설 조성, 화훼 연출 작업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개막 전까지 시운전 및 리허설 등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800만 관람객을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순천 도심에서 개최된다. /순천=박경식 기자



구례군이 최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구례=제공

구례, 경로당에 친환경 쌀 공급한다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맞손

구례군이 최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일현)과 '구례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백일현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 쌀 판로 확대로 농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례군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내 경로당 288개소에 연간2,378포(20kg)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여수, 국내 톱 웰커밍 도시 '1위'

천사벽화마을·오동도 등 눈길

여수시가 세계적인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뽑은 올해 '국내 톱 웰커밍 도시' 1위로 선정됐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3년 트래블러 리뷰 어워드'에서 어워드를 수상한 숙소 파트너 점유율이 높은 국내 여행지를 도출한 결과를 최근 발표, 다시 방문해도 좋은 '톱 웰커밍 도시' 5곳으로 여수를 비롯해 서귀포, 속초, 광주, 부산을 선정했다.

부킹닷컴은 여수에 대해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여수해상케이블카, 오동도 등 유명 관

광지를 보유한 힐링 여행지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여수 앞바다 언덕에 자리한 골목 길이가 1004m라서 천사벽화골목이라 불리는 고소동 천사 벽화마을을 소소한 재미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소개했다.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은 여수출신 만화가 허영만 선생의 작품부터 어린이왕자 그림 등 골목골목 아가자기한 벽화를 만날 수 있는 주민 주도로 탄생한 관광지이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로 낮에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와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조명 빛에 어우러진 분위기 있는 여수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도 가볼 만한 관광지로 추천했다.

이외에도 3월 개화시기에 방문하면 3,000여 그루의 동백꽃이 붉게 물든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동백섬 '오동도'는 지금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라고 안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 등 다양한 여행 인프라를 보유한 여수는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이다"며 "관광객들이 여수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천연자원연구센터-한약자원연구센터, 공동협력 약속

천연물산업 전 주기 표준화 구축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센터장 이학성)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센터장 문병철)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천연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의 원재료, 원료표준화 정보교류 및 상호 공동 연구, 전문 인력 교류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는 한약자원 표준화, 한약자원 안전성 확보 등 한약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한약자원 전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약자원 확보와 활용에 주력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원재료 및 원료 소재의 표준화 연구 공동수행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활용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상호지원 등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천연물 산업 표준화와 규격화된 원재료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남도에 'K-천연물소재 전 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를 올해 국가사업으로 유치해 국내 천연물 산업의 대표주자 및 필수 통로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다문화가족·취약계층 대학진학·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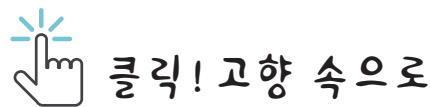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동강대와 상호협력 협약식

화순군이 최근 다문화가족·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화순군-동강대 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순군과 동강대가 상호협력해 다문화가족과 저소득 취약계층 구성원의 대학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과 저소득 취약계층 구성원에 대한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진로준비·사회진출 지원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교육정책 지원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 대학 교육정책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화순군과 동강대는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미래지능형 모빌리티과, 미래친환경에너지과, 호텔조리관광과)에 대한 입시설명회 개최 등 체계적인 학업 및 진로 준비를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보성산양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주거 개선

보성군은 최근 보성산양라이온스클럽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역도 꿈나무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다.

클럽 회원들은 새집 내·외부의 목은 쓰레기를 정리, 청소하고 도배·장

판과 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노동면에서는 새 이불을 지원했으며, 역도 꿈나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생계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성산양라이온스클럽 양동일 회장은 "앞으로도 저소득가정 꿈나무들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늘 앞장서서 돕겠다"라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여수산단로터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봉사

여수산단로터리클럽 회원들이 최근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을 찾아 벽지와 장판 교체 및 학생가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집수리 봉사활동에는 여수산단로터리클럽 회원 6명이 참여했다. 정순길 산단로터리클럽 회장은 "어렵게 생활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활

동에 휴일에도 참여해 준 대원들이 있어 힘이 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보 상봉동장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여수산단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 옥룡면 민간사회안전망, 성금 전달

광양시 옥룡면 민간사회안전망은 최근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림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옥룡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는 단독 주택으로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일어난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홀로 생활하던 80대 어르신은 전신 40% 정도 화상을 입어 현재 광주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주택이 반소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사정을 들은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들이 어르신의 빠른 쾌차를 위해 치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금 50만 원을 마을 이장을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기로 했다. /우성진 기자